

충북 귀농·귀촌 지원정책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Support Policy for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s in Chungbuk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충북의 귀농·귀촌인 312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충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어떤 지원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지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 준비 또는 정착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약 5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아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지원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전화 및 방문 상담'과 '기초 영농 교육'이었다.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지원 분야 중요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은 '사전정보제공'과 '농지, 주택, 일자리 등 정보'였다.

1. 연구배경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1970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경향은 충북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현상은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충북은 전국 비교 70세 이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60대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해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충북 귀촌인 312명을 대상으로 2021.06.01.~2021.06.20.동안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3. 연구내용

귀농·귀촌 준비 또는 정착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도움을 받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약 5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아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귀농·귀촌 준비 또는 정착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높았다. 이는 정보에 대해 보다 빠르게 습득해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원 받은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약 34%로 귀농·귀촌 상담이었으며 다음으로 약 30%가 귀농·귀촌 준비교육이었다.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 중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약 61%가 몰라서라고 응답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전화 및 방문 상담'과 '기초 영농 교육'이었다. 다만 다수의 정책이 보통으로 보이는 3점대에 머물러있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프로그램을 도내 안정적 귀농·귀촌을 실현한 주민과 농업·농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는 '귀농·귀촌 전화 및 방문 상담'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귀농농업창업주택 구입지원'과 '체류형 영농체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40~59

세는 특히 '귀농·귀촌박람회'에 대해 만족도가 타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60세 이상은 타 연령대에 비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지원 분야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은 '사전정보제공'과 '농지, 주택, 일자리 등 정보'였음. 가장 낮은 지원은 '생활비 용자'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4점을 넘어서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지원 분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금전적인 부분과 영농 기술적인 부분을 타연령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시사점

위 설문 조사 내용에서 보듯이 연령별로 귀농·귀촌의 목적과 귀농·귀촌으로 기대하는 바가 상이하다. 따라서 각 연령별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귀농·귀촌하려는 마을에 빈집이 많이 있어도 집주인들이 팔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폐가도 집주인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의 빈집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제시한 후에도 그대로 빈집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임대나 매도를 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의 리모델링을 실시, 귀농·귀촌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데 이장단회의, 마을회의, 농업인교육 등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에 귀농·귀촌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시·군민들에게 알려 지역민과 원활히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